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

2017년 봄학기 개강안내

전남대학교 <청소년철학교실>은 자기 자신,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명	요일/시간	형식	강사
1쪽지 고등부	논리학 입문	3월 20일 개강 매주 월요일 (총6강), 저녁 7:30 ~ 9:30	읽기/강의	손홍국 (철학과 박사수료)
2쪽지 고등부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 사고	3월 21일 개강 매주 화요일 (총6강), 저녁 7:15 ~ 9:15	강의/토론	김성부 (철학과 박사수료)
3쪽지 고등부	민음의 이면 - 안과 바깥, 경계의 탄생	3월 23일 개강 매주 목요일(총4강) 저녁 7:20~9:20	강의/토론	백송이 (철학과 박사수료)

신청정보

신청기간 : 2017년 2월 24일 ~ 3월 23일
 강의기간 : 2017년 3월 20일 ~ 4월 24일
 수강료 : 1, 2쪽지 각 8만원 (6회강의)
 3쪽지 6만원 (4회강의)
 문의 : youthphilo@hanmail.net
 010-9884-0166 (백송이)

신청방법

- ①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youthphilo@hanmail.net로 송부
- ② 신청확인 안내메일 확인
- ③ 신청확인 안내메일에 기재된 계좌로 강의료 입금

* 강의 장소 :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2층 210호 강의실

* 다음 카페_ <http://cafe.daum.net/youthphilo> (전남대 철학교실 또는 청소년 철학교실 검색)

 twitter.com/youthphilo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

논리학 입문

우리의 삶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대개 생각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문제는 자주 생각의 형식인 사고방식과 결합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과정은 바로 생각의 방식에 관한 이해와 함께 수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논리학은 사고형식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인간 생각의 본질적 형식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강의는 논리학 입문을 위한 강의로서, 논리학의 기본적 역사와 이론을 주요 텍스트와 함께 다룰 것입니다.

- 일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강의기간 : 2017년 3월 20일 ~ 4월 24일 (6회)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손홍국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 교재: 매 수업 시 수업자료 배부함.
- 수강대상: 고등학생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3월 20일	학문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1권1장, 5권2장>	읽기 및 강의
2	3월 27일	철학이란 무엇인가? <플라톤, 『국가』 7권>	
3	4월 3일	개념의 형성 <어빙 코피, 『논리학 입문』 3장>	
4	4월 10일	생각의 전개 <어빙 코피, 『논리학 입문』 6장>	
5	4월 17일	진리는 어떻게 오는가?1 <데카르트, 『방법서설』 2부>	
6	4월 24일	진리는 어떻게 오는가?2 <칸트, 『순수이성비판』 선행론적 연역>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논리적 사고

우리의 생각은 종잡을 수 없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생각은 어떤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사유하는 포괄적인 모든 사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 중에는 논리에 의지한 사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당연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판단하기도 하지만, 때론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두 생각은 경험적으로 인간의 당연한 사유 방식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사고의 방식은 각기 다른 국면에서 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수학적 문제를 풀 때는 논리적 사고가 감정적인 생각보다 더 유용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사유의 방식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생각을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학문의 공적인 영역으로 구분해 보고,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 유용하다고 보이는 논리적 사고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의는 주로 참여자들의 토의와 발표 등으로 진행되고, 때로는 강의와 글쓰기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강의기간 : 2017년 3월 21일 ~ 4월 25일 (6회)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김성부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로)
- 수강대상: 고등학생

* 수강인원 :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3월 21일	자신의 생각과 생각 표현하기	글쓰기, 발표
2	3월 28일	사적이고 공적인 우리의 생각 구분하기	강의, 토의
3	4월 4일	사적인 생각과 감정적 설득력	강의, 토의
4	4월 11일	공적인 생각과 논리적 설득력	강의, 토의
5	4월 18일	논리적 근거의 주장과 설득	글쓰기, 토의
6	4월 25일	합리적 토의와 논리적 근거	발표, 토의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이면

- 안과 바깥, 경계의 탄생

고된 입시경쟁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학생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수업은 이런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통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에 대한 무한한 신뢰. 혹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현실 인식. 아니면, 모두가 그렇게 하니깐 안하면 안 될 것 같은 군중심리 등등.

이러한 말들 자체는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학생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치 이 점을 확인시켜주듯, 시험은 치러도 치러도 항상 눈앞에 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부정할 수 없는 굳어진 현실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학교의 현실은 영화 빌리지(Village, 2004)의 배경인 거짓말로 유지되는 한 마을과 어딘지 닮아있습니다. 그 마을의 일상을 이해하려면, 마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탄생을 이해하려면, 그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믿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러한 믿음이 삶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적인 믿음이 어떻게 학생을 지배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학생의 삶을 만들어냈는지를 이 영화의 구도를 빌려 추적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일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20분 ~ 9시 20분
- 강의기간 : 2017년 3월 23일~ 4월 13일 (4회)
- 장소: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210호실
- 진행: 백송이 (전남대학교 철학과 박사수료)
- 수강대상: 17~19세 청소년

* 수강인원 : 수강인원 15명 내외, 수강인원이 8명 미만 시 폐강됩니다.

* 사정에 따라 강의 회수가 축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축소 운영 시에는 강의료의 일부를 환불해드립니다.

회차	날짜	세부내용	비고
1	3월 23일	학생의 현실은 어떤 믿음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강의 소개
2	3월 30일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경계 : 영화 ‘빌리지’	영상 감상 및 읽기/토론
3	4월 6일	거짓말을 원하는 사회	
4	4월 13일	믿는 것과 보는 것 :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읽어내는가?	

* 추후 일정 및 내용은 수업 진행 과정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청소년 철학교실

1. 청소년 철학교실의 탄생 배경

청소년 철학교실은 2005년 여름부터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철학교실>로 출발하였습니다. 이 빛고을 철학교실은 <교사를 위한 윤리학>과 <청소년 철학교실>, <기초 라틴어 강좌>, <기초 희랍어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06년 전남대학교 철학과가 정부의 BK21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함으로써 더욱 활성화 되었습니다. <빛고을 철학교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철학교실>과 시민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인문강좌>로 세분화되었고, 현재 청소년 철학교실은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과 전남대학교 <철학연구교육센터>의 주관으로 각 계절마다 (1년 4학기) 다양한 주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2. 청소년 철학교실의 운영 목적

중·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성인들 못지않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대학을 가야 하는지’, 혹은 ‘왜 살아야 하는지’ 등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쟁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묻고 대답해볼 기회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전남대 <청소년 철학교실>에서는 전남대학교 철학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좁게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넓게는 세계와 인간,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구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배움과 소통, 그리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3. 청소년철학교실 외부강의 운영안내

인문학 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청소년 철학교실 개설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청소년 철학교실은 광주 시내/전남지역 고등학교와 협약 하에 강사가 해당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출장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는 1꼭지 당 8회(주 1회, 2시간)로 이루어지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 참여자는 20명 내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획 의도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과 운영방식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철학교실 출장 강의를 지난 2016년 광주·전남지역의 16여개 고등학교에서 28개 분반의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외부 출강과 관련된 문의는 다음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youthphilo@hanmail.net